

광주 미술계 숙원 독립큐레이터 그룹 뚝다

김선영·박유영씨 월산동에 '오버랩' 문 열어
작년 'Cycle 001' 이어 'Cycle 002' 진행
소통·실험 위주 기획...기획자 양성 프로그램도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의 김선영(오른쪽)씨와 박유영씨

▶'오버랩'이 기획한 'Cycle 002' 전시작 서영실&카리나 브로스 곤자가의 '조각난 파편의 회상에 접기다'



지난 8월 강은 작가 작업실에 동료 화가들과 김선영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지역 미술과 비엔날레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 이날 김 대표이사와 강은씨 등이 이구동성 이야기 한 게 있었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전시를 기획할 '독립 큐레이터'의 필요성이다.

지역 미술계의 경우 미술관 등에 소속된 큐레이터들은 많지만 아쉽게도 독자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꾸리는 독립 큐레이터들의 존재는 미미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 'Cycle 002'를 기획한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의 행보는 반갑다. '오버랩'은 특히 지난 6월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2층 단독 주택을 임대해 작은 전시장과 레지던스, 사무실을 갖춘 공간 '오버랩'을 오픈, 안정된 상황에서 전시를 기획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선영(39), 박유영(30)씨로 구성된 '오버랩'은 지난 2015년 가을 결성됐다. 최근 '오버랩'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마음에 담아왔던 꿈들을 펼쳐보이는 요즘이 힘들면서도 행복한 듯했다.

전남대에서 서양화를, 조선대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를 전공한 김 씨는 '매개공간 미나리' 코디네이터를 시작으로 아트스페이스 '미테 우그로' 공동 디렉터, 소아르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했다. 또 석사 학위 논문으로 '광주 지역 대안 공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썼다.

함께 팀을 꾸린 박 씨는 전남대 불문과 출신이다.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미테우그로가 진행한 행사에 보컬과 퍼포머 등으로 참가하고 외국 작가들과 교류하며 큐레이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에서 인턴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녀는 미테우그로에서 인연을 맺은 김씨와 한배를 타게 됐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독립 큐레이터 그룹을 꿈꿨다. 많은 행사가 장기 플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아쉬워서다. 그룹 이름 '오버랩'에는 '예술계 내 관행을 넘어선(OVER) 큐레이터와 예술가들의 활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실험과 연구(Lab)를 장려한다' 등의 의미를 담았다.

"기관에 소속된 큐레이터는 장점이 많지만 그만큼 한계를 느끼기도 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시각'이 빠르게 되면 온전히 '나만의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죠.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데 성취감이 있어요."

김 씨는 독립 큐레이터의 장점이 "무언가 고정 관념에 갇히고 정해진 게 없으니 '모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 공모를 통해 5000만원을 지원받은 '오버랩'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작가들과의 소통과 실험, 교류에 방점을 두고 기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열린 'Cycle 001'에 이어 최근 전시를 마친 필리핀 바롤로드 작가와의 교류전 'Cycle 002' 역시 카리나 브로스 곤자가 등 오버랩에 2달간 입주했던 필리핀 작가 3명과 광주의 서영실·설박·이재문 작가가 각각 팀을 이뤄 '잊혀진 기억' 등 3개 작품을 완성했다. 9월 중순에는 바롤로드에서 프

젝트가 이어진다.

'오버랩'은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재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김한나씨 등과 함께 1주일에 한차례씩 예술철학 등을 공부하고 있다.

"큐레이터는, 작가를 이해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싶어요. 오픈 마인드로 작가의 감정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싶습니다. 작가들과 큐레이터간에는 알게 모르게 벽같은 게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우리는 동반자이자, 동행자라는 마음으로 기획하려고 합니다. 작가는 작업으로, 큐레이터는 기획으로 실험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것 아닐까요?"

김씨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작가를 지원하고 작가들의 피드백을 받는 그런 기획자 그룹을 꿈꾼다"고 말했다.

'오버랩'은 '모든 갤러리가 하는 단순한 진열방식의 전시는 하지 않는다. 그룹전을 하지 않는다'는 두가지 원칙을 정했다. 개인 작가나 공동창작자가 공간을 활용해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을 구현하는 모습을 꿈꿔서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언제나 두렵죠.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기 점검도 합니다. 그럴 때 지역 예술가들의 격려와 피드백이 큰 힘이 되지요."(김선영)

'오버랩'은 9월부터 좀 더 자주 공간을 오픈하려 한다. 작은 파티도 열고 수시로 작은 모임도 개최한다.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기획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의 010-8701-73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블랙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공연



9일 교육관 대강당

"참아왔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줍니다." 어둠과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대학로 블랙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상연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9일 오후 3시와 6시, 두차례에 걸쳐 교육관 대강당에서 대학로 블랙코미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를 상연한다.

'죽여주는 이야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자살'이라는 어두운 소재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블랙코미디 연극이다.

이야기는 자살사이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다룬다. 신선한 자살 상품을 소개하며 고객들에게 확실한 죽음을 맞게 해주는 자살사이트 회장 '안락사', 그런 그에게 죽고 싶다고 찾아온 정체불명의 여인, 그리고 그녀가 데려온 한 사

내의 사인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죽음마저도 상품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죽음마저도 눈감아 버리는 비정한 현 세태를 꼬집는다. 각박한 사회 속에서도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견지하며 어려운 상황을 웃음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관객 참여방식으로 공연 중에 배우가 즉흥적으로 지정한 관객이 배역을 맡아 매회 공연이 색다르게 진행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5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9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2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상설공연 '광대' 무대

7일...길놀이·사물놀이·진도북춤



목요상설공연 후반기 공연이 7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풍물 연희예술단의 '광대'로 시작된다.

풍물 연희예술단 '광대'는 전통풍물예술의 맥을 잇고 전통 타악 예술의 질 높은 재창조와 실험창작 공연을 통해 전통 국악예술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 전통타악 예술공연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길놀이와 축원 덕담에 이어 삼도 설장구, 사물놀이, 구정 놀이, 진도북춤, 부포춤, 버구춤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9월 공연일정은 14일 전주관소리합창단 판소리 공연, 21일 김보람작곡가의 퓨전 음악 작곡 발

표, 28일 천지음예술단의 모듬 북 공연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연주회 10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플루티스트 이현경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에펠드 플루트 앙상블은 2008년 창단 후,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 단체다. 이번 공연에는 링컨 센터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아티스트, 플루티스트 김수연(사진)씨가 협연자로 등장한다.

주제의 '시인과 농부 서곡', 함평고등학교 1학년 선예은의 협연으로 주창의 '리콜레토 환상곡', 라이하의 '4대의 플루트를 위한 심포니코', 파헬벨의 '캐논',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제2번'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김수연의 협연으로 메르



카단테의 플루트 협주곡을 들려줄 계획이며 에펠드 플루트 주니어의 연주로 김광민의 '학교가는 길'과 몽라의 '파리스, 파리스'가 연주된다.

이날 지휘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초당대학교 교수이자 목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김연주가 맡는다.

입장료 2만원(학생 50% 할인)이며 예매는 인터넷 티켓에서 하면된다.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한가위 패키지 10월 3일~5일(3일간)
고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스탠다드룸 ₩60,000 (조식별도 / 1인 ₩11,000)